



즉시 배포용: 2023년 6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300만 달러 규모의 MANHATTAN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확장 공사를 뉴욕시에서 추진**

*22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기금으로 본사 확장 및 일자리 100개 창출 지원*

*기술과 혁신 허브로서 뉴욕시 입지 강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통신 솔루션 기업인 Manhattan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MetTel)이 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뉴욕시 55 Water Street에 위치한 본사 확장 및 리노베이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etTel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성과 기반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Excelsior Jobs Program)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 220만 달러까지 지원받는 이 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문 서비스 부문 정규직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정규직 일자리 180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SD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NYCEDC)와 함께 MetTel의 55 Water Street 본사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창의성이 빛나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의 희망입니다. MetTel의 확대는 뉴욕시가 역동적인 기술 허브라는 것을 보여주며,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의 최전선 지역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1996년 뉴욕시에서 창립된 Manhattan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MetTel)는 기업과 정부의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자동화를 통한 운영 간소화를 지원합니다. 본사는 리노베이션 공사를 통해 협업과 창조, 혁신을 낳는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뉴저지, 유타,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운영 중인 이 기업은 최근 플로리다로의 확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ric Adam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etTel은 진정한 뉴욕시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해 성장했습니다. 기업이 이곳에서 운영을 지속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민관 파트너십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을 지원할 기술을 개발하며 직원 100명을 고용하여 도시 전체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우리 행정부는 상업 코리도 활성화와 빈 건물 개발, 핵심 성장 산업 투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 동안 사라진 일자리 99 퍼센트를 복구했습니다. 뉴욕시는 경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Hope Knigh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SD는 뉴욕시의 활기찬 기술 부문의 핵심 기업인 MetTel의 운영 확대를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뉴욕시의 역동적인 환경과 최고 인재들이 MetTel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사업 확장은 뉴욕시가 기술 산업의 성공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MetTel이 역사를 계속 써나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Maria Torres-Springer** 뉴욕시 주거 경제 개발 인력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시와 뉴욕주 모두의 승리이며, 정부가 어떻게 민간 부문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MetTel이 도시 경제에 일자리 100개를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어가며 뉴욕의 통신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Andrew Kimball**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협력하여 MetTel이 뉴욕시에서 운영을 계속할 뿐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 100개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뉴욕시 기반 기업인 MetTel이 뉴욕시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 것은 기업 커뮤니티가 Adams 행정부의 시정 운영에 대해 느끼는 믿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계속 고임금, 고성장 부문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NYCEDC는 활기차고 포용적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경제를 다섯 개 자치구에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MetTel** 최고경영자인 **Marshall Aronow**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etTel은 도시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성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시는 언제나 혁신과 회복의 중심지였으며 우리는 이토록 역동적인 기업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남게 되어 기쁩니다. 맨해튼에서 운영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건설하고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NYCEDC 기업개발팀(Business Development)이 MetTel 및 ESD와 2년간 협력하여 뉴욕시 운영 확장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MetTel은 NYCEDC와 함께 인력 개발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로어 맨해튼 기업 커뮤니티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전략적 투자는 혁신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기술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뉴욕시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 허브로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과 전 세계 수준에서 경제적 진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욕시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으며 자본 접근성을 확보한 역동적인 생태계로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성공한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강력하고 탄력적인 기술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기술 생태계 지원을 통해 뉴욕주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